

# 경주 국립공원

GYEONGJU NATIONAL PARK

Nature, Our Future!

경주국립공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시간의 광장입니다.

경주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된 지리산에 이어 1968년 두 번째로 지정된 국립공원입니다. 우리나라 22개의 국립공원 중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여느 국립공원과 달리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화유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역사교육의 장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잘 보존된 신라 문화유적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으며 생태계의 보존이 우수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천년고도 경주국립공원은 8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불교문화의 백미인 불국사·석굴암 석굴을 품에 안은 토함산과 불교 유적이 있는 '노천박물관' 남산을 비롯하여 무열왕릉이 있는 서악지구, 김유신 묘가 있는 화랑지구, 백률사가 있는 소금강지구, 감은사지가 있는 대본지구, 화랑의 수련장이었던 단석산지구, 천도교의 창시자 수운 최재우 생가터와 묘가 있는 구미산지구로 구분됩니다.

경주국립공원에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경주국립공원에는 우리 선조의 지혜가 담겨있는 뛰어난 역사·문화유산 그리고 우수한 생태 경관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토함산지구에 위치한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를 건축으로 표현한 사찰로 신라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굴사원 석굴암 석굴과 함께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인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는 천년이 지나고도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 천년 수도에 남겨진 흔적 경주국립공원 8개 지구

### 남산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산은 '노천 박물관'으로 불립니다. 불상 36구, 탑 13기, 절터 109개소가 있습니다. 금오봉(468m)과 고위봉(494m), 두 봉우리에서 뻗어 내린 40여 산줄기와 계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남북 10km, 동서 4km로 타원형입니다. 옛 신라 선조들은 부처가 남산에 머물며 자신들의 안녕을 지켜준다고 하여 불국토로 여겼으며, 현재는 경주를 대표하는 명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남산 보석곡 제8사지 오층석탑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 소금강지구

소금강산은 삼국 통일 이전에는 신라가 나라의 제사를 올리던 신라의 오악 중 북악으로 불렸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경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신라 법흥왕 때 이차돈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순교한 이야기가 전해 오는 신라 불교의 성지입니다. 백률사는 이차돈의 죽음을 기리는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아울러 소금강산에는 4면에 불상을 정성스레 새긴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국보)과 경주 탈해왕릉(사적) 등 신라 건국기의 역사 현장을 두루 둘러볼 수 있습니다.



백률사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 서악지구

경주시 서쪽의 서악지구 중심에는 해발 380m의 선도산이 있습니다. 이 선도산에는 신라의 건국 설화와 관련된 선도산 성묘에 얽힌 전설이 전해옵니다. 또한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경주 무열왕릉(사적)이 있습니다. 산 정상부에 위치한 경주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보물)을 비롯하여 진흥왕, 진지왕과 같은 천군한 역사 속 인물의 자취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무열왕릉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

### 단석산지구

화랑 출신의 명장 김유신 장군이 무예를 연마하여 큰 비위를 단련에 즐겼다는 일화가 지명의 유래로 전해오는 단석산(斷石山)은 해발 827m로 경주 인근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경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군사 요충지였기에 삼국통일 이전 신라의 오악 중 중악이라 부르며 성스럽게 여겼습니다. 산 정상부에는 우리나라 석굴사원의 시원적 형식을 보여주는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국보)이 있습니다.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미륵입상



### 토함산지구

토함산(土含山)은 경주 동쪽을 둘러싸고 있는 높이 745m의 산입니다. 동해에서 밀려오는 구름과 안개를 토하고(含) 머금은(土)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라 오악(五岳) 중 하나로 호국의 천산으로 신성시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사적)와 석굴암 석굴(국보)이 있습니다. 석굴암 일대는 해맞이 명소입니다.



불국사 반야연지 불국사 천왕문



정향리사지

### 화랑지구

화랑지구 동쪽의 전왕 좋은 울창한 숲속에 삼국통일의 명장, 신라 김유신 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화려한 모습의 이 묘는 지름이 30m이며 심이지산상이 새겨진 호석과 난간을 두른 원형분으로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왕릉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주 김유신묘 김유신묘 심이지산상

### 대본지구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호국 정신이 깃든 곳입니다. 죽어서 용이 돼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문무왕의 수종대왕릉(사적), 아버지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지은 감은사 터에는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국보)이 있습니다.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이 용을 보았다고 전해 오는 이연대는 유명한 해맞이 명소입니다.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문무대왕릉

### 구미산지구

경주시 건천읍과 서면, 현곡면에 걸쳐있는 해발 594m의 구미산은 동학(천도교)과 관계가 깊습니다.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 최재우의 생가터와 묘, 그리고 그의 묘가 활동의 무대가 된 용담정이 구미산지구 안으로 들어옵니다. 최재우가 인내천(人乃川)사상을 깨치고 용담유사를 집필한 용담정은 그의 정신을 추모하는 많은 이들이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을 단풍경관의 숨은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담정 최재우 동상



경주 남산 용장사곡 삼층석탑

## 아름다운 천년 고도를 품은 경주국립공원

### 문화지원

신라의 천년 수도 경주에는 발길 가는 곳, 눈길 닿는 곳마다 선조의 숨결이 담긴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가득합니다. 찬란한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은 오늘의 우리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 불국사(사적)와 석굴암 석굴(국보)

토함산에 자리한 불국사와 석굴암 석굴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1995년 등재)입니다. 불국사는 신라 경덕왕 때인 751년 재상 김대성이 창건했습니다. 불국사 다보탑과 삼층석탑 등 국보 7점이 있습니다. 석굴암 석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굴사원인 석굴을 화강암으로 만든 뒤 그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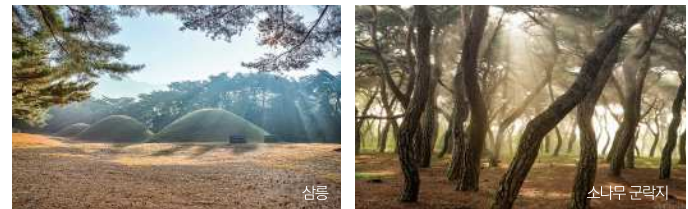


불국사 다보탑과 삼층석탑 불국사 다보탑 석굴암 석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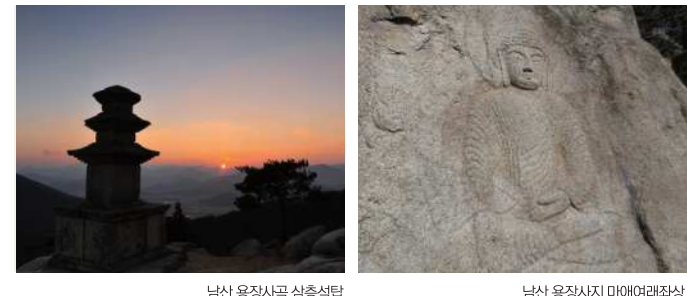


#### 남산 배동 삼릉(사적)

삼릉은 경주 남산 서쪽 기슭에 왕릉 3기가 나란히 있어 붙은 이름입니다. 신라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무덤이라고 전해 옵니다. 삼릉은 이리저리 휘어진 소나무가 뻗뻗한 숲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아침 인계 저속할 때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삼릉 소나무 군락지



남산 용장사곡 삼층석탑 남산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 남산 용장사곡 삼층석탑(보물)

용장굴 탐방로 정상 부근에 있는 삼층석탑은 자연 암반을 아래층 기반으로 삼고 그 위에 탑신을 올렸습니다. 마치 바위산 전체를 기반으로 삼은 듯 장엄합니다. 남산에서 가장 높은 탑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탐방로 근처 은적굴은 김시습이 왕위를 빼앗긴 단종 임금에 대한 신의를 지키며 숨어 지냈다는 골짜기입니다. 그는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국보)

봉화굴 정상 아래에는 남산 암벽에 새겨진 불상 중 으뜸으로 치는 칠불암 마애불상군이 있습니다. 4각 바위기둥 각 면에 연꽃에 얽은 부처님을 새긴 사방불과 그 뒤 암반에 새겨진 삼존불상이 주인공입니다.

####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보물)

삼릉계곡에 위치한 불상으로 정수리 부근에는 큼직한 상투 모양의 육계가 있고 왼쪽 어깨에만 걸쳐 입은 옷의 주름 선은 간결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었습니다. 8각의 연화대좌에 새겨진 연꽃무늬와 안상을 비롯하여 당당하고 안정된 통일 신라시대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 천년 역사와 함께 보전해야 할

### 생태지원

경주국립공원에는 모두 3,822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식물 1,211종, 포유류 34종, 조류 138종, 곤충류 1,459종, 기타 980종입니다. 멸종위기종으로는 수달, 흰고리수리, 담비, 삿, 애기송이벌, 하늘다람쥐 등 25종이 있습니다.



매화미름 Ranunculus kizamiensis 남생이 Mauremys reevesii(Gray) 애기물소동구리 Capria septentrionalis Waterhouse 수달 Lutra lutra 하늘다람쥐 Pteromys volans 마귀관대바섯 Amanita pantherina

### 대표 야생생물

구분	주요지원
식물지원	매화미름, 애기송이벌, 자주왕귀계, 복주머니난
포유류	수달, 삿, 담비, 하늘다람쥐
조류	새조리기, 붉은배새매, 조종이, 새매, 참매, 수리부엉이, 긴꼬리까새
파충류	남생이
곤충류	애기물소동구리
고등균류	노랑망태버섯, 수원무당버섯, 마귀관대버섯

### 깃대종

국립공원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징적인 동·식물을 깃대종으로 선정하여 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원앙 *Anas platyrhynchos*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오리과의 조류로 활짝수련이 발달한 신안 계곡의 나무구멍에 둥지를 틀니다. 경주국립공원 구미산 및 토함산지구에 사계절 관찰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Pinus densata*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록 침엽교목으로 예로부터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삶, 문화, 역사와 더불어 절개, 인내, 의지를 상징하는 종으로 경주국립공원 내 가장 낮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미륵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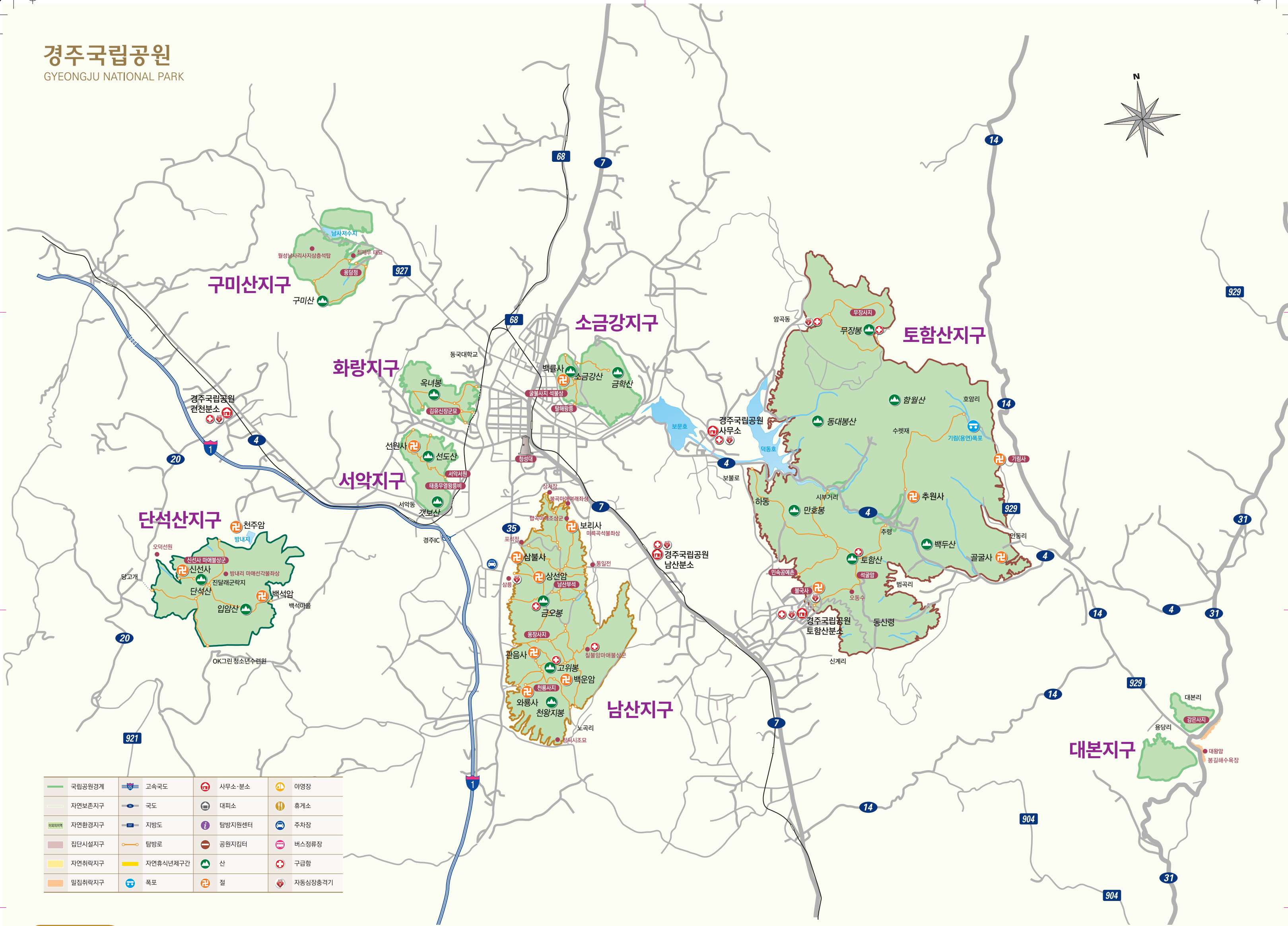


종합안내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 공익신고  
☎ 38116 경성북도 경주시 천북남로 12 (신평동) ☎ 054) 778-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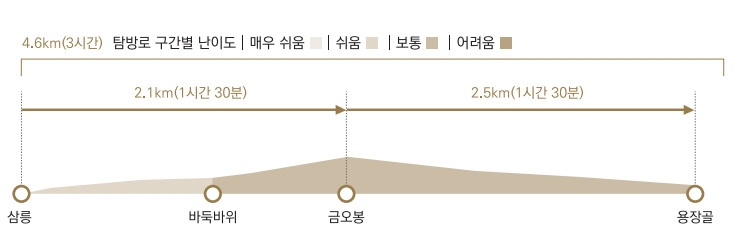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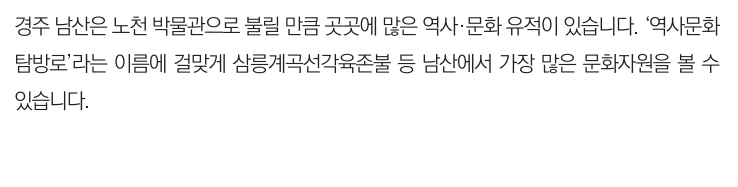


남산지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긴 노천 박물관  
삼릉 역사문화 탐방로

구간 삼릉-금오봉-용장굴  
편도 4.6km 시간 약 3시간 소요 난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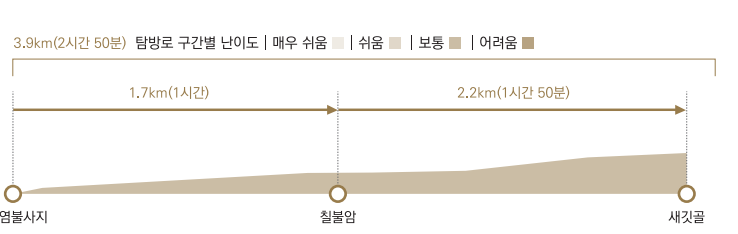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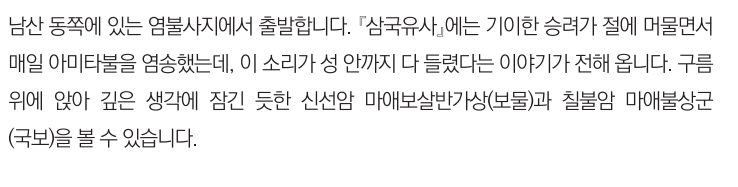
경주 남산은 노천 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곳곳에 많은 역사·문화 유적이 있습니다. '역사문화 탐방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삼릉계곡산각육존불 등 남산에서 가장 많은 문화자원을 볼 수 있습니다.



보물과 국보를 따라가는 역사의 숨결  
봉화굴 역사문화 탐방로

구간 영불사지-칠불암-새길굴  
편도 3.9km 시간 약 2시간 50분 소요 난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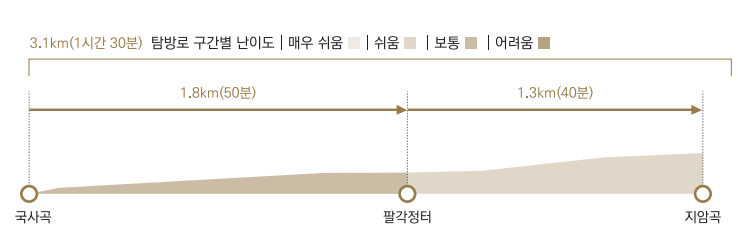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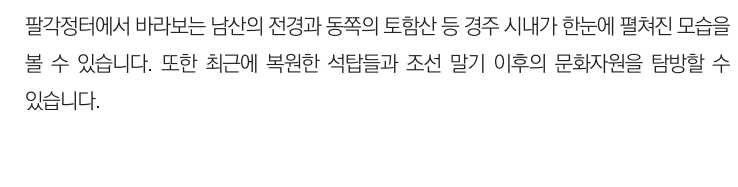
남산 동쪽에 있는 영불사지에서 출발합니다. 「삼국유사」에는 기이한 승려가 절에 머물면서 매일 아미타불을 염송했는데, 이 소리가 성 안까지 다 들렸다는 이야기가 전해 옵니다. 구름 위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보물)과 칠불암 마애불상군(국보)을 볼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밝은 빛과 새로운 땅  
국사국 역사문화 탐방로

구간 국사국-팔각정터-지암굴  
편도 3.1km 시간 약 1시간 30분 소요 난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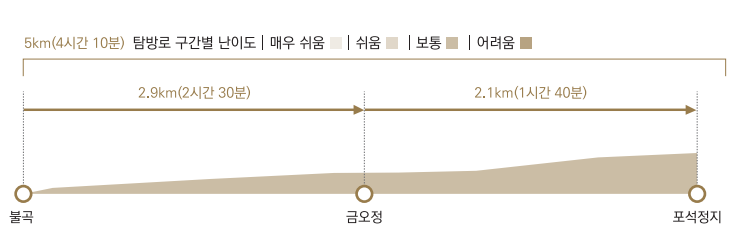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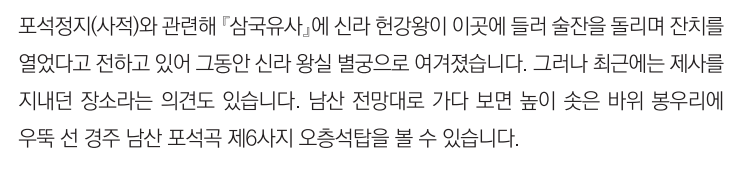
팔각정터에서 바라보는 남산의 전경과 동쪽의 토함산 등 경주 시내가 한눈에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복원한 석탑들과 조선 말기 이후의 문화자원을 탐방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길 따라  
포석정지 역사문화 탐방로

구간 불국-금오봉-포석정지  
편도 5km 시간 약 4시간 10분 소요 난이도 ●●○○○

포석정지(사적)와 관련해 『삼국유사』에 신라 헌강왕이 이곳에 둘러 술전을 돌리며 잔치를 열었다고 전하고 있어 그동안 신라 왕실 별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사를 지내던 장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남산 전망대로 가다 보면 높이 솟은 바위 봉우리에 우뚝 선 경주 남산 포석제6사지 오층석탑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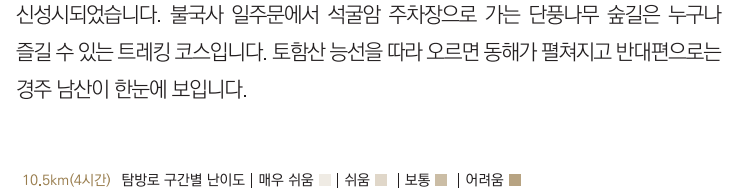


토함산지구

신라인의 호국 명산  
토함산 탐방로

구간 불국사-석굴암 주차장-토함산 정상-담골 갈림길-시부거리 갈림길-보물포  
편도 10.5km 시간 약 4시간 소요 난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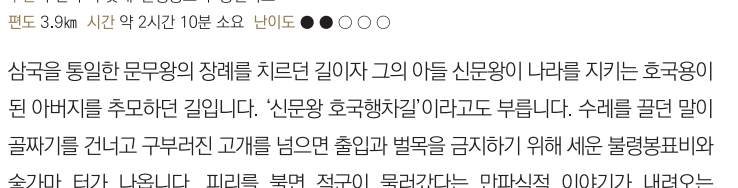
인간과 구름을 머금은 토함산(해발 745m)은 신라 오락 중 동악인 호국의 전산으로 신성시되었습니다. 불국사 일주에서 석굴암 주차장으로 가는 단풍나무 숲길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토함산 능선을 따라 오르면 동해가 펼쳐지고 반대편으로는 경주 남산이 한눈에 보입니다.



총과 효를 이어주는 길  
왕의 길 탐방로

구간 추원사-수렛재-동대봉-유정봉-영국  
편도 3.9km 시간 약 2시간 30분 소요 난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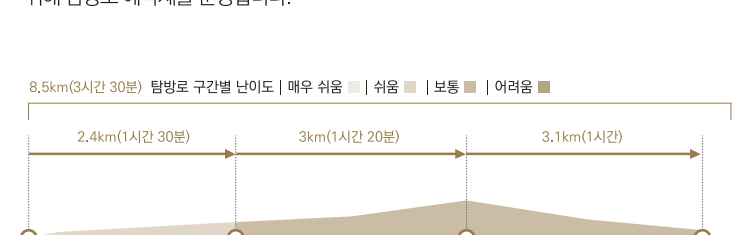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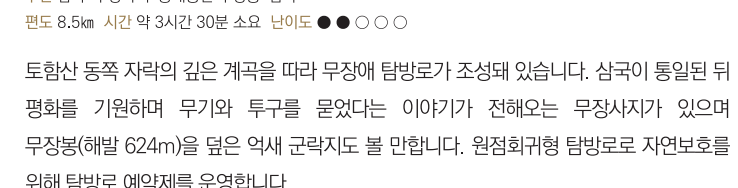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장례를 치르던 길이자 그의 아들 신문왕이 나라를 지키는 호국용이 된 아버지를 추모하던 길입니다. '신문왕 호국행차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수레를 끌던 말이 끝자리를 건너고 구부러진 고개를 넘으면 출입과 벌목을 금지하기 위해 세운 불령봉표와 솟기마 타가 나옵니다.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갔다는 민파식적 이야기가 내려오는 용연폭포와 고즈넉한 기림사도 만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은빛 물결  
암곡 동대봉산 무장봉 탐방로

구간 암곡-무장사지-동대봉산 무장봉-영국  
편도 8.5km 시간 약 3시간 30분 소요 난이도 ●●○○○

토함산 동쪽 자락의 깊은 계곡을 따라 무장에 탐방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삼국이 통일된 뒤 평화를 기원하며 무기와 투구를 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무장사지가 있으며 무장봉(해발 624m)을 덮은 역사 군락지도 볼 만합니다. 원점회귀형 탐방로로 자연보호를 위해 탐방로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단석산지구

화랑들의 수련장소  
신선사 탐방로

구간 단석산 주차장-신선사-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단석산 정상  
편도 3.7km 시간 약 1시간 30분 소요 난이도 ●●○○○

단석산은 신라시대에 화랑들의 수련 장소로 이용되었던 곳으로 신 이름은 김유신 장군이 신선으로부터 힘을 받아 검으로 바위를 내려쳤더니 바위가 갈라졌다는 전설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해발고도가 827m로 경주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산 중턱에는 거대한 임벽에 10구의 불상과 보살상이 새겨져 있는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국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